

월드컵 2골 조규성보다 등번호 없던 오현규가 더 인기?

스코틀랜드 셀틱, 조규성서 오현규로 선택

선수들 개인은 유럽행 의지...구단은 주저

2022 카타르월드컵에 나갔던 두 선수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등번호도 없이 예비 선수로 갔던 오현규(22·수원)는 스코틀랜드 셀틱으로부터 공식 이적 제안을 받았지만 가나전 2골로 인기가 급상승해 셀틱행 가능성이 제기됐던 조규성(25·전북) 쪽은 오히려 잠잠하다.

이적설이 먼저 제기된 쪽은 조규성이었다. 카타르월드컵 도중에도 불거진 이적설은 대회 직후 더 뜨거워졌다.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을 비롯해 페네르바체(튀르키예), 도르트문트(독일), 스타드 렌(프랑스) 등이 조규성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규성 역시 유럽 진출 의지를 드러냈다.

이적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는 모양새다. 이적할 팀과 이적할

시점을 놓고 조규성과 전북 구단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전 기회 역시 관건이다. 무작정 유럽에 진출했다가는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경기 감각만 잃을 수 있다. 이동준이 도쿄올림픽 활약을 바탕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 도전했다가 1년 만에 국내로 복귀한 것은 타산지석이 될 만하다.

조규성이 주축하는 사이 오현규가 경쟁자로 등장했다.

조규성에 관심이 있던 셀틱은 한국프로축구 수월 삼성에 공식적으로 오현규 영입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전에서 2골을 넣은 조규성이 아닌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지도 못한 오현규가 셀틱의 눈에 든 것이다.

오현규는 등번호 없이 대표팀 카타르 캠프에 합류해 월드컵을 경험하며 팀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줬다. 그랬던 오현규에게 셀틱이 이적료 200만 유로(약 27억원)에 완전 이적을 제안한 것이다.

2001년생인 오현규는 지난 시즌 K리그1 38경기에 출전해 14골3도움을 기록했다. 이는 K리그1 득점 7위 기록이자 수월 팀 내 최다 득점 기록이었다. 185cm 장신 공격수인 오현규는 큰 체격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몸싸움과 저돌적인 플레이가 강점이다.

조규성과 오현규가 나란히 이적시장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소속팀 전북과 수원은 고민을 하게 됐다. 선수들은 유럽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올해 K리그1 성적을 내야 하는 양 팀은 핵심 공격 자원인 조규성과 오현규의 이탈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선수의 미래와 구단의 한 해 농사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조규성과 오현규가 어떤 행보를 할지 주목된다.

뉴시스



1부 승격 준비 광주FC, 네덜란드 수비-브라질 공격 보강

수비수 티모, 맨유 감독 에릭 텐 하흐 지도 받아



광주FC 티모 영입. (사진=광주FC 제공)

올해 프로축구 1부 리그 K리그1로 승격하는 광주FC가 외국인 선수 영입을 통해 전력을 보강했다.

광주는 2일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빅리그에서 뛴 수비수 티모(29·Timo Letschert)를 영입했다.

188cm에 84kg인 티모는 공중 장악과 대인 방어, 안정적인 공 처리가 강점인 중앙 수비수다. 정확한 킥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등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다고 광주는 소개했다.

티모는 네덜란드 명문 클럽 아약스의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성장해 2012~2013시즌 FC흐로닝언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이후 네덜란드 에레데비지에와 이탈리아(사수올로, 세리에A), 독일(함부르크SV, 분데스리가2) 등 유럽 빅리그에서 뛰었다.

티모는 2014~2015시즌 FC위트레흐트에 합류했을 당시 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령탑인 에릭 텐 하흐 감독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티모는 주전으로 나서 KNVB컵 준우승을 이끌었으며 2016 위트레흐트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티모는 2016년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 소집됐다. 이후 AZ알카마르(네덜란드 에레데비지에)와 링비BK(덴마크 1부)를 거친 티모는 이번에 광주에 합류했다.

티모는 "손흥민과 김민재의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K리그를 알게 됐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며 "광주가 1부 리그에서 단단히, 꾸준히 버틸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전남에는 팀 공격을 책임질 브라질 출신 공격수 토마스(29·Thomas Jaguaribe Bedinelli)를 영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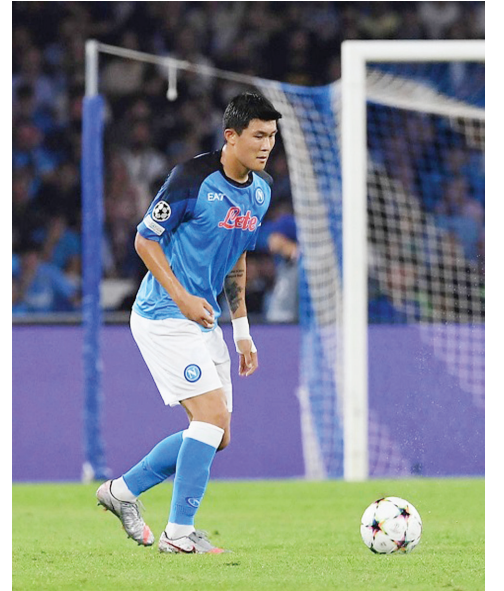
180cm에 76kg인 토마스는 동료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는 물론 공간 침투와 침착한 마무리가 장점인 최전방 공격수라고 광주는 소개했다. 좌우 측면과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 가능하다.

2011년 CR플라멩구(브라질 세리에A, 리우데 자네이루주 1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토마스는 데뷔 시즌 팀의 주 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ACN시에나(이탈리아 세리에B), 시애틀 사운더스(미국 MLS) 등 해외 리그를 경험한 뒤 브라질 세리에B(조인 빌레EC, 산타 크루스 FC, 룬드리나 등)에서 맹활약을 펼친 토마스는 2018~2019시즌 아폴론 스미르니스에 합류해 이듬해 리그 준우승과 함께 1부리그 승격을 이끌었다.

이후 아트로미토스(그리스 1부), 차페코엔세(브라질 세리에B)를 거친 토마스는 광주를 통해 K리그에 입성했다.

토마스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광주는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조직력이 강점이라고 느꼈다. 이 점이 나와 잘 맞는다"며 "하루 빨리 나의 득점으로 환호하는 팬들의 함성을 듣고 싶다. 팀의 승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나폴리, 유럽 5대 리그 유일한 무패팀 '등극'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 김민재(27)가 뛰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가 유럽 프로 축구 5대 리그 유일한 무패 팀이 됐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생제르맹은 2일(한국 시간) 프랑스 랑스에 있는 스타드 펠릭스 블라르에서 열린 2022~2023시즌 프랑스 프로 축구 리그1 17라운드에서 랑스에 1-3으로 졌다.

파리생제르맹은 올 시즌 리그에서 처음으로 졌다. 14승2무1패가 된 파리생제르맹은 승점 44점에 머물렀다. 반면 리그 2위 랑스는 12승4무1패로 승점 40점을 기록해 파리생제르맹을 4점 차로 추격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리그에서도 1위 팀들이 다 1번씩은 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위인 아스날은 14승1무1패, 스페인 라리가 1위인 바르셀로나는 12승2무1패, 독일 분데스리가 1위인 바이에른 뮌헨은 10승4무1패다.

반면 김민재가 뛰는 이탈리아 세리에A 1위 나폴리만은 13승2무로 이번 시즌 패배를 경험한 적이 없다.

김민재가 이끄는 나폴리 수비는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며 리그 무패 행진을 주도했다. 안정된 수비를 앞세운 나폴리는 이번 시즌 들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와 컵대회 등에서도 1패만 기록 중이다. 유일한 패배는 지난해 11월1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 리버풀 원정 0-2 패배다.

카타르월드컵을 마치고 나폴리로 복귀한 김민재는 올해도 무패 행진을 이어갈 태세다. 나폴리는 오는 5일 오전 4시45분(한국 시간) 인테르밀란을 상대로 월드컵 휴식기 후 첫 경기를 치른다.

전통의 명문 인테르르는 현재 5위로 처져 있지만 2022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출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등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8강에 진출시킨 측면 수비수 덴젤 뎀프리스도 인테르 소속이다.

김민재가 월드컵 후 복귀전에서 지난해와 같은 철벽 수비를 펼쳐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최장 연속 시간' 무득점...손흥민 EPL진출 후 최악 골 가뭄

692분 연속 무득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토트넘)이 리그 진출 이후 최장 경기 시간 무득점 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은 1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와의 2022~2023 EPL 18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풀 타임을 소화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이 경기로 리그 8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했다.

2일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이날 경기에서 무득점을 이어가면서 연속 출전 시간 합산 기준 최장 시간 무득점 기록을 경신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9월17일 레스터시티를 상

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을 끝으로 이날까지 692분 연속 무득점을 기록했다.

이전 최장 시간 무득점 기록은 2020~2021시즌 기록한 514분이었다.

손흥민은 또 이날 경기로 지난 2015년 8월 EPL에 입성한 뒤 최다 풀 타임 출전 경기 연속 무득점 기록도 경신했다.

아스톤 빌라와 경기가 풀 타임 출전 기준 6경기 연속 무득점 경기였다. 이전 최장 연속 기록은 2020~2021시즌 풀 타임 연속 5경기 기록이었다. 출전 시간과 상관없이 보면 손흥민은 이날 연속 8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했다.

최장 시간 기록은 리그 데뷔 시즌인 2015~2016시즌 14경기 무득점 기록이다. 당시에는 주전 경쟁을 하던 때라 10분미만 교체 출전한 경기가 7경기나 된다.

당시 10분 이상 뛴 경기에서 연속 무득점 경기 수는 8경기로 현재와 타이 기록이다.

지난해 11월 초 안와골절 부상으로 수술받은 손흥민은 2022 카타르 월드컵과 지난달 26일 브렌트포드와 경기에 보호 마스크를 쓰고 출전했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는 손흥민이 부상 뒤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경기를 뛰었으나 팀은 0대 2로 패배했다. 2개월 만에 맨얼굴로 나서며 새해 첫 공격포인트를 노렸지만, 소득 없이 경기장을 나섰다. 그는 이번 시즌 3골(2도움)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EPL 득점왕으로서 언제 연속 무득점 기록의 불명예에서 벗어나 올해 첫 마스컬이 골을 선사할 지 주목된다.

토트넘은 5일 영국 런던 셀허스트 파크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와 맞붙는다.



지난 시즌 K리그서 가장 가성비 떨어진 팀은? FC서울

지난해 K리그1에서 투자 대비 성적이 가장 나빴던 팀은 FC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발표한 2022 K리그 선수 연봉 지출 현황에 따르면 FC서울은 선수 연봉에 약 113억원을 투입해 총지출액에서 4위에 올랐지만 리그 최종 순위는 9

위였다.

제주유나이티드(123억원)도 지출액 순위는 3위였지만 리그 순위는 5위에 그쳤다. 대구FC(99억원) 역시 지출액은 5위였지만 리그 순위는 8위에 머물렀다. 수원삼성(88억원)도 지출액은 8위였으나 리그 순위는 10위였다.

반면 투자 대비 성적이 가장 좋았던 구단은 포항스틸러스였다. 포항은 리그 12개 팀 중 10위에 불과한 77억원만 투입하고도 리그 3위에 올랐다.

인천유나이티드(88억원)도 지출액은 7위였지만 리그 순위는 4위였다.

2부 리그인 K리그2에서 가장 투자 효율이 떨어진 팀은 서울이랜드였다. 서울이랜드는 전체 2위에 해당하는 57억원을 투자했지

만 리그 순위는 7위에 그쳤다.

부산아이파크(55억원)도 지출액은 5위였지만 리그 순위는 10위였다. 전남드래곤즈(43억원)도 지출액은 7위였지만 리그 순위는 11위에 그쳤다.

반면 가성비가 가장 뛰어났던 K리그2 팀은 광주FC였다. 광주는 6위에 해당하는 50억원만 투입하고도 막강 전력을 자랑하며 리그 1위에 올라 1부 리그로 승격했다.

뉴시스